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 I

- 경제자원 문제를 중심으로 -

최 은 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Economic Problems of Rural Poor Households in Korea - Focused on the Economic Resources -

Choi, Eun-Sook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empirically the economic resource problems of the rural poor households. Data from 444 rural sample households in four provinces, divided into two subgroups, the poor and the non-poor households, were analysed and compared. The owned arable land size, level of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income, assets, debts and the sufficiency of living expenses of the poor households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non-poor households respectively. The significant findings and drawn conclusions are as follows :

The rural poor households

1. tends to show smaller family size, older age and lower level of education of homemakers than the non-poor households, that might work as constraints to income sources and quality.
2. has not only small arable lands and agricultural income but also even smaller cash income, less than 50% of total income, with 27% of self-product consumption and depends more on non-agricultural income than the non-poor households. Such weakness of income structure might cause and increase the income instability of the rural poor households.
3. reveals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 and components of assets from the non-poor households : lower level of assets, less amounts of but more load of debt due to lower solvency that comes from low level of income and assets, higher debts for consumption and lower accessibility to credit.

All these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poor households might have compound effects on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poor households and make vicious circle of poor.

Key Words : rural poor households, economic resource problems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비약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의 농촌과 농민은 농업구조의 취약성과 도농간 투자불균형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빈곤과 낙후로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을 수반하는 낮은 생활의 질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보건사회부의 통계에 의하면 1989년 전국생활보호대상자의 75.4%가 농어촌주민이었으며, 1991년의 경우 농촌주

민의 12.2%가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62.5%가 농촌주민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의 상대적 낙후성이 어느 정도 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수혜대상요건이 극히 한정적이고 최근들어 도농간에 차이를 두지않게 되면서 소규모라도 토지를 소유한 영세농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수혜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3(정 명채, 199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많은 농촌 빈곤가계들의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추측케 한다. 이들 농촌 빈곤가계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없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빈곤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곤의 제약상은 개인과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안겨주어 추가적인 사회보장과 사회문제해결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빈곤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1900년대 초반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시도되어 왔으나 빈곤의 양상이 시대와 사회와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출되고 그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시대와 사회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 빈곤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적 원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적 해결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영농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으로 농촌 빈곤가계가 실제로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제자원 문제와 소비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농촌의 복지 정책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주민들의 실태와 요구를 토대로 시행되어야 함을 생각할 때, 개별 농촌가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파악과 분석이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농촌 빈곤가계가 실제로 경험하는 경제문제를 빈곤농가의 경제 자원과 소비의 효율성문제로 나누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서 소득, 자산, 신용과 관련된 경제 자원의 문제를, 두번째 단계에서는 소비생활 및 시장환경과 관련된 소비의 효율성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 농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농가의 빈곤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농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농가의 경제문제 중 경제자원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빈곤은 경제 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며 부족한 경제 자원은 소비의 효율성이 낮을 때 빈곤을 지속, 심화시켜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경제 자원의 희소성이 주로 소득의 불안정성과 자산의 부족 및 신용의 제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빈곤가계의 경제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빈곤가계의 일반적인 문제는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경제 자원이 궁핍해지며 예기치 못한 경제 자원의 필요는 물론, 예상되는 경제 자원의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빈곤가계는 현재의 소득과 소득이 축적된 형태인 자산이 부족하므로 사회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완충력이 없어서 빈곤이 더욱 영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1. 소득의 불안정성

빈곤 가계의 소득 문제는 보통 소득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낮다는 점 외에도 소득원천이 불명확하고 제한되어 있거나 파행적일 수 있으며, 불규칙적이고 장래소득에 대한

1) 정명채(1992)는 전체도시빈곤가구의 73.8%가 농촌 빈곤가계출신이라고 보고하였다. 최일섭 등의 서울시 노점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주전 직업이 농어업인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다(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

보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빈곤가계는 가장의 근로소득이 낮은 편으로 공적 사회적 이전수입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실직한 경우 소득문제는 보다 심각해지기 쉽다(윤정혜, 1986 등).

빈곤농가의 경우는 현금소득의 비중이 낮고 농산물가격과 생산자재의 가격변화 등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하며, 소득 창출시기가 불규칙해서 더욱 자주 경제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영세농의 경우 토지의 영세성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고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업노동자나 도시 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되어 또다른 빈곤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정기환(1992)에 의하면 농촌 빈곤가계의 74.5%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농가의 취업자 비율은 49.9%로 단순직 등의 농외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농가는 경지의 부족과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어려움으로 작목을 다양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두가지 면에서 농가소득의 불안을 야기한다. 먼저 소득의 절대액수가 적을 뿐 아니라 기상조건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기 쉬우며, 농작물의 수확시기가 일정하다는 점에서 현금소득이 1년 중 특정시기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농가소득의 이러한 불안정성은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 자원에 대한 요구 즉, 영농자금이나 가계비, 자녀교육비 등 까지도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하지만 농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협의 대출²⁾은 담보능력이 있는 중농과 대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빈곤농가의 신용제약은 더욱 큰 현금 부족의 압박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빈곤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음식물이나 의류, 주거 등의 기본적 필수품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며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의 불안정성은 이들 빈곤 소비자가 내구재 등의 고가 상품을 할인판매 같은 유리한 구매시기의 선택, 대량구매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등을 박탈한다. 낮은 가격의 조악한 상품을 주로 구매하게 되므로 비용만큼의 편익을 얻지 못하거나 수리 및 유지, 추가구매 등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Caplovitz, 1963 ; Swagler, 1979)

2. 자산의 부족과 신용의 제약

빈곤가계의 자산 및 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작아서 신용을 얻으려 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김영모(1990)는 1981년 조사에 의거하여 빈곤가계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재산이 거의 없으며 재산액의 수준은 농촌빈민이 도시빈민 보다 더욱 낮았고 응답자의 91.8%가 물려받은 유산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9)이 조사한 빈곤가계의 저축율과 부채율은 각각 28.4%와 44.2%로 저축이유는 주택마련이 49.4%로 가장 높았고 교육비와 결혼비용이 그 뒤를 이었으며 부채이유로는 가계비 부족이 28.8%, 의료비 22.2%, 주택관련 비용이 16.5%로 나타났으며 저축과 부채 모두 생활형편이 좋을 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토개발원(1989)의 조사에 의한 저축율과 부채율은 각각 45.6%와 42.7%로 나타났다. 미국의 빈민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에서도 빈곤집단의 소비자가 저축이 적었으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사용을 통해 내구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lovitz, 1963 ; Swagler, 1979)

우리나라 농가의 부채는 생산성 부채가 많으므로³⁾ 빈곤농가의 부채액은 일반 농가보다는 적지만 저축액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점차 늘고는 있으나 용자가 농업 중심으로 운용되므로 담보 설정 등의 어려움이 있는 빈곤농가는 제도 금융권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적인 신용에 의존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자산의 부족과 부채의 상속 등 빈곤의 제약상은 세대간에 이전되어 또다른 빈곤 소비자를 낳는데,

2) 1993년 농가부채액의 86.4%가 농협의 대출임

3) 1993년 전국농가의 평균 부채액 683만원 중 생산성 부채가 526만원으로 77%를 차지함

정 기환(1992)에 의하면 현재 가장의 33.2%가 부모세대에도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부모세대에 빈곤층이었던 가구 중 58.1%가 빈곤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빈곤농가의 경제자원 문제가 낮은 소득과 소득의 불안정성, 부족한 자산과 신용의 제약으로 특징 지워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나,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농가의 경제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빈곤농가의 경제 자원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가유형 : 경제 자원의 수준에 따라 분류된 빈곤 및 비빈곤(경제적 중하위, 중상위, 상위) 농가. 경제 자원의 수준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현물소득의 비중이 높은 농가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자산으로 인한 소비의 잠재성을 고려하고자 소득과 자산 모두를 고려하였다.

빈곤농가 : 상대빈곤이론⁴⁾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빈곤선 이하의 농가로서, 표본농가를 소득과 순자산별로 각각 하위 30%⁵⁾, 중위 40%, 상위 30%⁶⁾의 하·중·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1, 2, 3점을 주었을 때 2점에서 6점 사이에 분포하는 소득과 순자산 점수의 합이 3점 이하인 농가.

비빈곤농가 :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빈곤선 위에 위치하는 농가로서 소득과 순자산 점수의 합에 의해 분류된 경제적 중하위(4점), 중상위(5점), 상위농가(6점).

농가의 경제 자원 문제 : 빈곤의 원인이 되는 경제 자원의 결핍문제로 소득의 부족과 자산 및 신용의 제약 등이 포함된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빈곤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빈곤농가의 경제 자원 실태는 어떠한가?

또, 비빈곤농가와와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절차

빈곤의 개념 및 측정 방법의 고찰을 위해 기존 빈곤관련 문헌연구를 수행하였고, 1993년 12월 14일에서 1994년 1월 18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의 5개 마을을 방문하여 관찰과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빈곤지표를 검토한 후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조사대상가계를 선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도농촌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경기, 강원, 충남, 충북의 4개도에서 도시근교, 평야, 중간 및 산간지대별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을 추천받았다. 본조사는 1994년 4월 21일에서 4월 29일에 걸쳐 농가주부가 가족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비농가 및 부분적으로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4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⁷⁾.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패키지인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교차분석 및 χ^2 검증, 일원분산분석 및 F 검증과 최소유의차(LSD) 검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농가의 경제 자원 수준은 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농가의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각 경제 자원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4) 일반적으로 하위 20~40%를, 또는 평균소득(혹은 중위소득)의 1/2 또는 1/3을 빈곤선으로 봄

5) '93 전국 농가 평균소득의 1/2(하위 1/5) 수준과 평균 순자산의 약 1/3 수준

6) '93 전국 농가 평균소득과 순자산의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7) 표본조사는 각도별로 3개군을, 군별로 3개마을을 선정하였고 마을당 20~22호를 선정 총 798부를 배포하여 716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본 조사 목적상 자료가 완전한 44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음

1. 빈곤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가 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대와 가족원수, 주부의 연령과 학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1) 지대 분포

<표 1>은 농가의 유형에 따른 지대분포로 빈곤농가의 경우 평야지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31%) 중하위농가는 도시근교에, 중상위 이상의 농가는 평야지대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전통적인 쌀농사 중심의 농업을 하는 농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농가에 있어 지대는 작목을 결정하게 하므로 농업소득에 영향을 주고 토지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자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의미있는 변수가 된다.

<표 1> 농가유형별 지대 분포 및 χ^2 검증 결과
단위 : 호 (%)

구 분	빈 곤	중하위	중상위	상 위
도시근교(100)	27(17.5)	42(35.9)	23(21.7)	8(11.9)
평 야(142)	48(31.2)	23(19.7)	37(34.9)	34(50.7)
중 간(88)	37(24.0)	19(16.2)	17(16.0)	15(22.4)
산 간(114)	42(27.30)	33(28.2)	29(27.4)	10(14.9)
계(444)	154(100.0)	117(100.0)	106(100.0)	67(100.0)

$\chi^2=34.3^{***}$, $df=9$

*** $p<0.001$

2) 가족원수

농가 유형에 따른 동거 가족원수는 빈곤농가의 평균이 5.0명임에 반해 빈곤선 이상의 농가의 경우에는 모두 5명 이상으로서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동거 가족원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빈곤농가는 영농규모가 영세해서 농촌에서 소득 창출이 불가능한 가구원은 도시의 2, 3차 산업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촌의 빈곤농가는 상대적으로 동거 가족원수가 적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농가유형별 가족원수 분포 및 χ^2 검증 결과
단위 : 호 (%)

구 분	빈 곤	중하위	중상위	상 위
4명이하(134)	61(39.6)	32(27.4)	27(25.5)	14(20.9)
5명 (134)	48(31.2)	35(29.9)	34(32.1)	17(25.4)
6명 (89)	25(16.2)	26(22.2)	23(21.7)	15(22.4)
7명이상(87)	20(13.0)	24(20.5)	22(20.8)	21(31.3)
계(444)	154(100.0)	117(100.0)	106(100.0)	67(100.0)
평균(중앙값)	5.0(5.0)	5.5(5.0)	5.5(5.0)	5.7(6.0)

$\chi^2=18.2^*$, $df=9$

* $p<0.05$

3) 빈곤농가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 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서 빈곤농가 주부의 연령은 비빈곤농가 주부 보다 높았으며, 비빈곤농가 중에서도 중하위농가가 중상위 이상 농가 보다 주부의 연령이 약간 높아서 빈곤농가일수록 주부의 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3> 농가유형별 주부의 연령 분포 및 χ^2 검증 결과
단위 : 호 (%)

구 분	빈 곤	중하위	중상위	상 위
-39세(165)	42(27.3)	37(31.6)	53(50.0)	33(49.3)
40~49세(216)	78(50.6)	63(53.8)	48(43.3)	27(40.3)
50세이상(63)	34(22.1)	17(14.5)	5(4.7)	7(10.4)
계(444)	154(100.0)	117(100.0)	106(100.0)	67(100.0)
평균(중앙값)	43.6(42.0)	42.6(41.0)	39.9(39.5)	40.7(40.0)

$\chi^2=28.5^{***}$, $df=6$

*** $p<0.001$

4) 빈곤농가 주부의 학력

주부의 학력 분포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빈곤농가가 비빈곤농가 보다 상당정도 낮아 빈곤농가의 주부는 국졸 이하가 59%에 달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은 11%에 불과했다. 비빈곤농가에서는 상위로 갈수록 학력이 높았다.

〈표 4〉 농가유형별 주부 학력 분포 및 χ^2 검증 결과

구 분	단위 : 호 (%)			
	빈곤	중하위	중상위	상위
국졸이하(202)	91(59.1)	57(48.7)	33(31.3)	21(31.3)
중졸이하(166)	46(29.9)	51(43.6)	48(45.3)	21(31.3)
고졸이상(76)	17(11.0)	9(7.7)	25(23.6)	25(37.3)
계(444)	154(100.0)	117(100.0)	106(100.0)	67(100.0)

$\chi^2=48.2^{***}$, df=6

*** p<0.001

2. 빈곤농가의 경제자원

빈곤농가의 경제 자원 문제를 소득의 불안정성과 자산의 부족 및 신용의 제약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빈곤농가의 경지 규모, 소득 및 소득 유형,

가계비, 자산 및 자산 유형 등의 상태를 빈곤농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았다. 다음에 이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1) 소득의 불안정성

① 경지규모의 취약성

농가의 경지규모는 농업소득과 자산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농가의 경지는 자가경지와 임차경지로 구성되는데 빈곤농가는 자가경지와 임차경지 모두 중상위 이상 농가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빈곤농가의 총경지(자가경지와 임차경지)는 1.1ha로 1993년 전국 평균 경작지 면적 1.3ha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하위농가는 1.7ha, 중상위농가는 2.4ha, 상위농가는 4.4ha로 빈곤농가의 총경지 평균은 상위농가의 평균 총경지 면적의 1/4로 나타났다.

〈표 5〉 농가의 농가유형에 따른 경제 자원 규모 및 최소유의차(LSD) 검증결과

구 분 (N=444)	빈곤 (N=154)	중하위 (N=117)	중상위 (N=106)	상위 (N=67)	F값
총 경 지 (ha)	1.1 a	1.7 a	2.4 b	4.4 c	25.7***
소 유 경 지 (ha)	0.8 a	1.3 b	1.8 c	3.2 d	35.8***
임 차 경 지 (ha)	0.4 a	0.5 a	0.6 a	1.2 b	2.8*
총 소 득 (만원)	669.6 a	1,259.1 b	1,680.2 c	2,687.7 d	126.8***
현금농업소득 (만원)	330.8 a	618.0 b	1,002.6 c	1,813.7 d	75.0***
자 가 소 비 (만원)	120.6 a	159.3 b	179.1 b	168.0 b	8.1***
농 외 소 득 (만원)	199.6 a	420.4 b	462.5 bc	592.5 c	11.9***
이 전 수 입 (만원)	15.2 a	52.4 ab	35.9 ab	104.2 b	2.4
총 가 계 비 (만원)	705.6 a	771.3 ab	889.8 b	1,206.1 c	13.6***
현 금 지 출 (만원)	584.3 a	611.2 a	707.1 a	1,034.3 b	12.4***
순 자 산 (만원)	3,853.5 a	7,170.4 b	11,961.5 c	20,711.2 d	126.4***
자 산 (만원)	4,281.3 a	7,975.5 b	12,838.4 c	21,814.2 d	124.7***
부 채 (만원)	739.5 a	873.4 a	966.0 a	1,214.0 b	1.9
저 축 (만원)	492.2 a	513.2 a	1,047.6 b	1,575.2 c	13.8***
현 금 보 유 (만원)	41.7 a	68.3 ab	89.1 b	111.0 b	2.6

*** p<0.001 * p<0.05

농가가 소유한 경지 규모는 농가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빈곤농가는 평균 0.8ha의 경지를 소유한 반면 중하위농가는 1.3ha, 중상위농가는 1.8ha, 상위농가는 3.2ha를 각각 소유해 농가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외소득원이 없는 빈곤 농가(1.3ha) 보다 농외소득원이 있는 빈곤 농가(0.9ha)의 경지규모가 더 작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6> 농외소득원 유무별 경지규모 및 최소유
의차 검증결과

		단위 : ha			
구 분		빈 곤	중하위	중상위	상 위
농외소득원 없음(N=169)	평균	1.3 a	2.3 ab	2.9 b	5.4 c
	F 값	13.74**			
농외소득원 있음(N=285)	평균	0.9 a	1.0 a	1.8 b	3.2 c
	F 값	26.47***			

*** p < 0.001 ** p < 0.01

임차경지에 있어서도 빈곤농가의 경우에 가장 작았고 상위농가의 임차경지 평균은 다른 농가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로 나타나, 빈곤농가는 소유한 경지는 물론 임차한 경지규모마저 작아 농업소득의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② 소득 수준과 구조의 취약성

농가의 총소득은 농업소득(현금농업소득과 자가생산물 소비액),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으로 구성된다. 빈곤농가의 연평균 총소득은 670만원(월 56만원) 수준으로, 1993년 전국 농가의 연평균소득 1,693만원 및 전국 도시근로자의 연평균소득 1,773만원과 비교해 볼 때 40%가 못 되는 수준이었다. 반면에 비빈곤농가 중 중하위농가의 경우 연평균 총소득은 1,259만원(월 105만원), 중상위농가의 경우는 1,680만원(월 140만원), 상위농가는 2,688만원(월 224만원)의 수준이었다.

빈곤농가의 총소득은 중하위농가의 약 절반수준이며, 상위농가의 1/4 미만인 수준으로 절대액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외에도 소득의 구성면에서도 타농가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농가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현금농업소득을 볼 때 빈곤농가는 월 28만원 수준인 연 331만원으로 중하위농가의 1/2, 중상위농가의 1/3, 상위농가의 1/6 수준으로 총소득 보다 더 큰 차이로 낮았으며, 빈곤농가의 총소득에 대한 현금농업소득의 비율은 49%에 불과하여(상위농가는 67%) 빈곤농가의 현금농업소득 기반의 취약성을 명백하게 나타냈다.

자가 농업생산물 중 판매하지 않고 자가소비한 부분인 자가소비액도 빈곤농가에서 비빈곤농가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적었다. 그러나 빈곤농가의 자가소비액은 농업생산 가치의 27%를 차지하여, 비빈곤농가의 경우(중하위농가 20%, 중상위농가 15%, 상위농가 8%)와 매우 대조적이며, 이는 빈곤농가의 농업생산구조가 자급자족적인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농가는 농외소득 수준도 매우 낮아서 연평균 200만원(월 17만원)에 불과했으며 중하위농가의 420만원, 중상위농가의 463만원, 상위농가의 593만원과 비교해 볼 때 1/2에서 1/3 수준으로, 농업소득만큼의 소득 불균등 상태는 아니나 농외소득에 있어서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소득 유형별 수준 뿐 아니라 소득 구조면에서 볼 때에도 빈곤농가의 소득구조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빈곤농가의 총소득에 대한 농외소득의 비율이 30%이고, 현금농업소득에 대한 비율은 60%에 달하여서 농외소득원이 제한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농촌의 현실과 빈곤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농외소득 의존도가 큰 빈곤농가의 소득구조는 소득수준과 함께 소득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농가는 이전수입(년 15만원)에 있어서도 규모가 매우 작아서 상위농가(년 104만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농가 유형에 따른 이전수입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전수입이 있는 119 농가를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빈곤농가의 가장 중요한 이전수입원은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부터 수입이 가장 많았던 비빈곤농가와 차이를 보였다.

③ 가계비 충족의 어려움

농가의 가계비는 현금 지출과 현물소비로 구성된다. 농가유형에 따른 현금지출 가계비는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빈곤농가로 갈수록 현금지출 가계비의 규모가 작았다. 빈곤농가의 현금지출 가계비 평균은 연 584만원(월 49만원)으로 현금농업소득의 1.8배였고 총소득의 87%에 달해 농업소득으로는 가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중하위농가의 현금지출 가계비 평균은 611만원으로 현금농업소득으로 충족되는 수준이었으며, 현금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는 중상위농가로 갈수록 높아져서 상위농가의 경우 현금지출 가계비 수준은 현금농업소득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자가생산물 소비는 농업소득과 가계비 양부문에서 모두 계정되어야 하므로 현금지출 가계비와 자가생산물 소비를 더해 농가의 총가계비를 계산한 결과 빈곤농가의 연간 총가계비는 706만원(월 59만원)으로 총소득 670만원에서 36만원이 부족했다. 결국 빈곤농가는 월평균 3만원의 적자를 안게 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중하위농가의 연간 총 가계비는 771만원(월 64만원)으로 총소득의 61%에 해당하며 중상위농가의 연간 총 가계비는 890만원(월 74만원)으로 총소득의 53%에 해당하고, 상위농가의 연간 총 가계비는 1,206만원(월 101만원)으로 총소득의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빈곤농가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빈곤농가에 비해 현격한 차이로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가계비 충당도 되지 않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산의 부족과 신용의 제약
① 자산의 부족

빈곤농가의 자산액은 4,281만원으로 중하위농가 7,976만원의 1/2 수준이고, 중상위농가 1억 2,838만원의 1/3 수준이며, 상위농가의 1/5 수준으로 소유경지 규모나 총소득 수준보다도 심한 불균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가소유경지이며 이 밖에 창고나 축사, 대동물 등의 농업생산자원이 포함되며 이러한 농업생산자원의 부족은 앞에서 살펴본 농업소득의 차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 수준은 자산수준보다 상위농가와 차이가 더 커서, 빈곤농가의

순자산 평균은 3,583만원으로 중하위농가 평균 7,170만원의 1/2 수준이며, 중상위농가 평균 1억 1962만원의 1/3 수준이고, 상위농가 평균 2억 711만원의 1/6 수준이다.

농가의 자산 중 저축은 농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빈곤농가일 수록 저축액이 적어서, 빈곤농가의 평균 저축 보유액은 739만원으로 중하위농가의 873만원, 중상위농가의 966만원, 상위농가의 1,214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농가유형별 저축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로서 빈곤과 중하위농가(78~79%)와 중상위, 상위농가(92~94%)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빈곤농가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농가는 상대적으로 저축할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농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농가유형별 저축하는 농가의 비율 및 χ^2 검증결과

구분	단위 : %			
	빈곤	중하위	중상위	상위
저축율	78.8	78.4	92.3	93.8
$\chi^2 = 15.8^{**}$, $df = 3$				

** p<0.01

농가의 저축목적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저축의 주목적은 전체농가에서 모두 교육비 마련을 위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비상시의 대비였는데, 교육비가 주목적인 비율은 빈곤과 중하위농가에서, 비상시 대비의 비율은 중상위와 상위농가에서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 빈곤농가의 경우는 노후대비, 영농자금의 순이었고 빈곤농가의 경우는 그와 반대의 순이었다. 저축의 부목적으로는 빈곤농가에서 비상시대비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반해 빈곤농가에서는 노후대비의 비율이 빈곤농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농가유형별 노후대비 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농가의 52%가 전혀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상위농가로 갈수록 이러한 비율은 23%까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 농가비율은 상위로 갈수록 뚜렷하게 증가했

다(24~50%). 특히 빈곤농가는 비빈곤농가보다 노후를 위한 저축을 이용하거나 자산을 임대, 처분하는 노후대비 방법의 선택 비율이 더 낮은 반면에,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비율이 빈곤농가일수록 현격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8〉 농가유형별 저축목적 및 χ^2 검증결과

단위 : 호(%)

구 분	빈곤	중하위	중상위	상위
교육비	61(51.7)	51(53.7)	48(48.5)	25(41.0)
영농자금	12(10.2)	8(8.4)	12(12.1)	8(13.1)
노후대비	14(11.9)	7(7.4)	8(8.1)	4(6.6)
비상시대비	29(24.6)	24(25.3)	29(29.3)	21(34.4)
기타	2(1.7)	5(5.3)	2(2.0)	3(4.9)
계(373)	118(100.0)	95(100.0)	99(100.0)	61(100.0)
$\chi^2=15.8^{**}$, df=9				
교육비	1(4.5)	1(4.8)	1(6.7)	1(8.3)
영농자금	6(27.3)	2(9.5)	2(13.3)	3(25.0)
노후대비	2(9.1)	10(47.6)	6(40.0)	5(41.7)
비상시대비	12(54.5)	7(33.3)	6(40.0)	3(25.0)
기타	1(4.5)	1(4.8)	0(0.0)	0(0.0)
계(70)	22(100.0)	21(100.0)	15(100.0)	12(100.0)
$\chi^2=37.9^{***}$, df=12				

** p<0.01, *** p<0.001

〈표 9〉 농가유형별 노후대비 유형 및 χ^2 검증결과

단위 : 호(%)

구 분	빈곤	중하위	중상위	상위
전혀못함	75	55	33	15
(178)	(52.1)	(47.4)	(32.4)	(23.4)
자녀에게 의지	13	5	3	0
(21)	(9.0)	(4.3)	(2.9)	(0.0)
자산임대, 처분	19	15	19	13
(66)	(13.2)	(12.9)	(18.6)	(20.3)
노후위한 저축	35	36	41	32
(144)	(24.3)	(31.0)	(40.2)	(50.0)
기타	2	5	6	4
(17)	(1.4)	(4.3)	(5.9)	(6.3)
계	144	116	102	64
(426)	(100.0)	(100.0)	(100.0)	(100.0)
$\chi^2=37.9^{***}$, df=12				

*** p<0.001

가계의 구매력이나 비상시 대처능력은 소득 및 자산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계의 현금 보유 및 현금 동원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수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농가유형에 따라 현금 보유액이 다르게 나타났다. 빈곤농가로 갈수록 현금 보유액이 적어 빈곤농가는 평균 42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중하위농가는 68만원 중상위농가는 89만원, 상위농가는 111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농가는 담보의 부족으로 신용을 제한 받고 있으므로 그들의 보유현금의 제약은 신용을 통한 보상도 받기 어려워 타 농가에 비해 소득차이 이상의 경제적 제약을 받을 것으로 추론된다.

② 신용의 제약

빈곤농가의 평균 부채 규모는 740만원으로 1993년 전국 농촌 부채평균액 683만원 보다 많았으나 비빈곤농가 보다는 적어 상위농가의 61%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부담정도를 볼 때 빈곤농가의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17%로 비빈곤농가(중하위농가 11%, 중상위농가 8%, 상위농가 6%) 보다 부채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채 규모의 좌편향분포로 인해 농가유형별 부채규모는 상위농가와 중상위 이하 농가 간에만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빈곤농가가 적자의 생활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부채규모가 비빈곤농가 보다 작은 것은 농가의 대출구조가 중대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 등 제도 금융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993년 농가 부채액의 86.4%) 생산성 부채의 비중(1993년 전체 전국 농가 평균 부채액의 77%)이 큰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빈곤농가의 신용제약이 비빈곤농가 보다 현금/경제적 대처능력을 더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부채의 주원인은 다음의 〈표 10〉과 같은데 농가유형에 관계없이 농업생산자재 구입비때문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가장 많았으나 빈곤농가일수록 비율이 더 낮아져서 빈곤농가는 영농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 순위의 부채이유로는 빈곤농가의 경우 교육비 때문이었으나, 비빈곤농가에서는 토지 및 주택구입비로 인

최은숙

한 것이어서 빈곤농가는 필수적인 지출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따라서 비빈곤농가에 비해

소비성 부채가 많고 생산성 부채의 비중이 적음을 시사한다.

〈표 10〉 농가유형별 주요 부채원인에 대한 응답비율

단위 : 호 (%)

구 분	빈 곤	중하위	중상위	상 위
농업 생산자 재구입비	54 (47.8)	43 (56.6)	41 (56.6)	29 (67.4)
토지 및 주택구입비	16 (14.2)	14 (18.4)	21 (26.3)	4 (9.3)
교육비	18 (15.9)	5 (6.6)	3 (3.8)	3 (7.0)
관혼상제비	2 (1.8)	0 (0.0)	1 (1.3)	0 (0.0)
주택개량비	7 (6.2)	6 (7.9)	6 (7.5)	2 (4.7)
의료비	4 (3.5)	0 (0.0)	0 (0.0)	0 (0.0)
일반 생활용품구입비	2 (1.8)	1 (1.3)	1 (1.3)	0 (0.0)
부채상환 및 이자	8 (7.1)	4 (5.3)	4 (5.0)	3 (7.0)
기타	2 (1.8)	3 (3.9)	3 (3.8)	2 (5.3)
계 (312)	113 (100)	76 (100)	80 (100)	43 (100)

농가유형별로 부채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은데, 빈곤농가와 중하위농가는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가장 많은 반면(39%, 44%), 중상위 농가는 '약간 부담된다'는 비율(43%)이 가장 많았고 상위 농가는 '매우 부담된다'와 '약간 부담된다'는 비율이 같은 수준(33%)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중하위농가의 경우 보통 이상 부담을 느끼는 농가가 각각 86%와 94%로 중상위,

상위농가의 80%, 79%보다 훨씬 많았으나 이것을 부채의 원인과 함께 생각해볼때 빈곤층 농가는 주로 소비성인 기본가계비 때문에 진 부채이면서 그 부담정도가 매우 큰 반면에 중상위 이상의 농가의 경우 주로 확대재생산을 위한 생산성 부채의 부담이 큰 것이므로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빈곤농가는 본 연구

〈표 11〉 농가유형별 부채부담 정도 및 χ^2 검증결과

단위 : 호 (%)

구 분	빈 곤	중하위	중상위	상 위
매우 부담됨 (100)	46 (39.0)	35 (44.3)	15 (18.5)	14 (32.6)
약간 부담됨 (107)	38 (32.2)	20 (25.3)	35 (43.2)	14 (32.6)
보통 (57)	17 (14.4)	19 (24.1)	15 (18.5)	6 (14.0)
별로 부담안됨 (33)	12 (10.2)	2 (2.5)	11 (13.6)	8 (18.6)
전혀 부담안됨 (14)	5 (4.2)	3 (3.8)	5 (6.2)	1 (2.3)
계 (321)	118 (100.0)	79 (100.0)	81 (100.0)	43 (100.0)

$$\chi^2 = 25.3^*, df = 12$$

* $p < 0.05$

에서 농가유형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한 총소득과 순자산 수준 뿐 아니라 총소득과 순자산을 구성하

는 소유경지 규모, 농업소득, 농의 소득, 가계비중족도, 자산, 부채 항목 등 각 경제자원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빈곤농가의 경제적 문제 중 경제 자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곤농가의 소유경지 규모, 농업 소득, 농외 소득, 가계비충족도, 자산, 부채 항목 등 각 경제자원의 수준을 비빈곤농가와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빈곤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가족원수가 적고, 주부의 연령이 높으며, 주부의 학력이 낮은 경향은 빈곤농가의 소득원 수와 질에 있어서의 상대적 취약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자원 문제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2. 빈곤농가의 소유 및 임차경지 규모의 취약성은 빈곤농가의 농업소득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하며, 더우기 낮은 소득수준에서 총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금농업소득과 27%에 달하는 자가생산물 소비는 빈곤농가가 자급자족적 성격의 농업생산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외소득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총소득의 30%, 현금농업소득의 60% 수준으로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빈곤농가의 취약한 소득구조는 가계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소득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빈곤농가의 자산은 그 수준과 구성면에서 비빈곤농가와 차이가 있어서 농업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액에도 불구하고 소비성 부채의 비중이 높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아서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담보의 부족으로 인한 신용의 제약은 현금/경제적 대처능력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빈곤농가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낮은 소득 수준 및 불안정성, 자산의 부족과 신용의 제약 요인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곤농가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도출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1. 많은 농가들이 가계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제적인 빈곤농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빈곤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현재의 빈곤선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빈곤농가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근본적 처방으로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복지정책 차원의 지원이 동시에 절실하게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안의 예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빈곤농가의 제한된 농외소득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농가부부와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직업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2) 빈곤농가의 소비성 부채 문제 해결과 노후 보장을 위해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와 의료보험 제도상의 혜택, 농어민 연금제도상의 혜택 등이 요구된다.

3) 적은 소득과 낮은 신용으로 인해 부채상환 및 추가적인 대출이 곤란한 빈곤농가의 부채문제 해결과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는 금융제도상 보조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

VI. 참고문헌

-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농림수산부(1994), 농가경제속보
- 박영철 외(1990), 토지공개념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토개발연구원
- 서상목(1979), 빈곤인구의 추계와 속성분석, 한국개발연구, 2권 : 13~30
- 서상목 외 6인(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1979), 저소득 시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특별시
- 윤정혜(1986), 도시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 이두호 외(1992), 빈곤론, 나남출판사
- 정기원(1988), 빈곤가구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한국개발연구원

- 정기환(1992), 농촌 빈곤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 사회 II : 235~257
- 정명채(1992), 농촌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 농촌 사회 II : 193~233
- 최일섭 외(1989),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 Caplovitz, D. (1967). *The Poor Pay More*. N.Y. : The Free Press.
- Swagler(1979), *Consumer and the market*, 2nd ed. , Heath and Company.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 of living*.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ownsend, P. (1962. 9), *The Meaning of Poverty*, *British J. of Sociology* 18, No. 3
- Wang, I. G. (1989. 3),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nd Rural Poverty Problems in Korea*, *Korea Observer* 20. 1 : 55~92